

급물살 타는  
조계종 사면

# 월탄 스님 등 월주 스님 사과예방

별반자를 포함한 조계종의 대사인 여부가 4월29일 열리는 제158회 임시중앙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98년 종단사태 때의 별반 징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입각에서는 별반자 사면을 위한 중헌 개정안이 중앙총회에서 부결될 가

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런 가운데 98년 조계종 사태 별반 징계자 중 핵심인 월탄스님이 22일 서울 구의동 영화사를 찾아가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월주스님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월탄스님은 "사형(월주스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고, 여러 가지

### 통합종단~2002년 제작이하 징계자 139명

조계종 호법부가 22일 대구에서 열린 교구본사 주지회의에 보고용으로 내놓은 사면 관련 문건에 따르면 1962년 통합종단 이후 2002년 12월31일까지 제작 이하의 징계집행자는 제작자 83명, 공권정지자 56명 등 총 1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 및 자료 조사 등 심사를 한 결과 제작자 23명과 공권정지자 3명 등 26명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작자 23명의 제외 이유는 혼인 15명, 사망 5명, 파렴치범 1명, 재산문제 2명 이다. 공권정지자 3명의 제외 이유는 혼인 1명, 2회연속 분한미필 1명, 해소소송 1명이다. 한편, 21일 현재 사면 신청자는 총 5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작자는 14명, 공권정지자는 37명이다.

### 29일 중앙총회 중헌개정에 관심 집중 법장원장, 총회·본사주지 설득 '열심'

능성이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사면을 통한 원용 화합 중단 구축을 강조하며 별반자 사면을 위한 중헌개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최근 총회 각 계파 중앙총회위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23일 대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 회의에서는 '종단 대화합을 위한 사면·복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사면 분

로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월주스님도 "모든 일을 원만하게 풀자"는 요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정우, 성문, 원학, 현소 스님 등 별반 징계를 받았던 4명의 스님들도 25일 월주 스님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탄스님을 비롯한 별반 징계자들이 월주 스님을 먼저 만난 것은 98년 당시 정화개혁회의를 이끌며 월주스님과 대립

했었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사면 노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화개혁회의를 이끌었던 스님들이 월주스님을 찾아가 사과를 함으로써 사면논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제작 이하 징계자 사면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거의 확실 시되고 있다. 이들 사면은 중헌 개정 없이 사면동의건만 총회에서 통과하면 된다.

그러나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사면의지에도 불구하고 총회 내 일부 계파에서 별반자 사면 반대론과 함께 중헌 개정안 표결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중헌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중앙총회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54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표결로 갈 경우 결과를 낙관할 수 없게 된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 "교직자는 안으로 교화기풍 진작하고 밖으로 사회·인류에 진정한 안락줘야"

#### 진각종 전 총인 각해 대종사 행장

진각종 제 6, 7대 총인을 지내고 종도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각해 대종사가 23일 서울 총인원에서 고결식(영결식)을 마지막으로 생을 회향했다. 각해 대종사는 사바세계와 인연이 다함을 알고 100일 정진에 들어가 입적 하루 전날인 20일 회향했다. 이 자리에

각종에 입문한 각해 대종사는 청림과 회생, 봉사로 평생을 산 보살의 화현이었다. 또한 50여년동안 오로지 종단 발전과 종생 교화를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 각해 대종사는 대구 희락심인당, 서울 탑주심인당 등지에서 수행과 중생교화에 매진했다. 64년 초대 중앙총회의

#### 청림·희생·봉사로 종단발전 중생교화 헌신

서 각해 대종사는 후학들에게 "모든 교직자는 안으로 교화하는 기풍을 굳게 하고 밖으로는 사회와 인류의 앞길을 인도하여 진정한 이익을 안락 줄 것이라"고 법륜한 뒤 다음날인 21일 새벽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1925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 53년 진

부위원장, 70년 제6대 총리원장, 위덕학사 이사장, 74년 제12대 사감원장, 84년 중앙총회 의장 등을 두루 거쳤고, 94년부터 2001년까지 종단의 최고 수장인 총인에 올라 종도들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 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현산당 영철율사 입적 21일 통도사서 다비

19일, 법랍 50세, 세수 66세를 일기로 원적에 든 통도사 전계대화상 현산당 영철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21일 통도사에서 열수됐다. 다비식에 앞서 금강계단 앞에서 열린

영결식은 명종, 개식, 청혼, 행장소개, 법어, 영결사, 추모사, 헌화, 분향, 문도 대표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영결식에는 통도사 부방장 초우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통도사 신도회 장복만 회장을 비롯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영철스님을 추모했다. 영철스님의 49재는 25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초재를 시작으로 6월 6일 막 재가 모셔진다. 천미희 기자

## '하필 초파일 앞두고 발표한 의도는?'

### 조계종·검찰의 입장과 의문점

SK로 하여금 북한산 승가사에 10억원을 시주토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18일 구속한 것과 관련해 불교계가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외압 여부와는 별개로 조계종과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코앞에 두고 이 전 위원장을 구속한 이유와, 명확한 사실관계 밝혀지기도 전에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고의로 유포한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총무원은 사건 발생 이후 강경했던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리고 보다 정확

사건에 맞고 있는 이남기 부장검사를 만나 "시주금이 뇌물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불교계는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이 불교계를 음해하기 위한 의도가 없다"는 요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불교계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최소한 장관급 인사를 구속했다면 그 이전에 치밀한 내사가 진행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공소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봤을 때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고 나서도 다룰 수 있는 문재라는 것이다. 조계종이 시주금을 뇌물로 여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런 의혹 때문이다. 한명우 기자

●검찰 입장=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남기 부장검사)는 외압을 행사해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토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18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볼 때 외압에 의한 제3자 뇌물수수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조계종 입장= 검찰의 생각과는 상당부분 다르다. 조계종은 우선 이 전 위원장이 SK측이 10억원을 승가사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입했는지의 여부도 아직까지 명확치 않고, 당시 신도회장이었던 명호근씨가 SK측으로부터 직접 시주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뇌물이 아닌 통례적 시주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22일 이번

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의문점= 불교계는 이번 사건에서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는, 외압설 사실 확인 이전에 고의로 이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것과 또 하나는 왜 하필이면 부처님 오신 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사건이 불거졌느냐는 점이다. 불교계는 이 전 위원장의 외압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사

사건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당초 이 전 위원장이 SK측으로부터 2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워 공소유지가 힘들어지자, 승가사 시주금을 몰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교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사건 발단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시점으로 택한 것은 정부나

견립승 승가사 복지원은? 10억원의 시주금이 쓰인 곳으로 알려진 곳은 8년 전부터 승가사가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에 건립 중인 법륜복지재단 복지원(법륜사)이다. 이 복지시설은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비구니 스님 노후복지시설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모두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공사규모가 큰 것은 모든 건물이 전통가람 양식으로 지어지는 데다, 각종 복지시설을 갖춘 계획이기 때문이다. 최근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조계종은 이 복지원 불사가 끝날 경우 승려 노후복지에 어느 정도 승용을 퇴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검찰 SK에 뇌물교부 압력 명시 통해 10억 받아
- 조계종 통상적 시주금일 뿐... 검찰주장 어불성설
- 의문점 사실관계 확인전 언론에 흘려, 속내 있을 것

새롭고 정갈한 음식観

##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부처님 오신날 한국디지털위성방송

# "부처님의 말씀이 불교TV안에 있습니다"

- SkyLife와 함께하는 불교TV시청 캠페인 -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통해 산간벽지의 난시청지역에도 부처님의 법음을 전합니다

**SkyLife란?** 국내 유일의 다채널 디지털위성방송으로 스카이라이프 수신기만 갖추시면 전국 어디서나 종교(불교TV 등), 영화, 음악, 청소년, 여성, 스포츠, 뉴스 등 150여개 다채널을 고화질, 고음질로 시청하실 수 있는 고품질의 방송서비스입니다

패키지명/채널명	채널수	채널구성
SkyFamily	112채널 (불교TV 포함)	일반채널 : 불교TV, KBS1, KBS2, EBS, 홈쇼핑 등 영화 및 드라마 : OCN, MGM, 드라마 3개 포함 12개채널 스포츠 : KBS, MBC-ESPN, SBS, SBS골프 등 5개채널 증권 및 뉴스 : CNN, HNK, YTN, 한경외우 등 어린이 : 대교, 재능스스로 / 디즈니, 니켈로디언 (원어방송)
EDU 1,2,3	초/중/고등학생들의 내산성적 향상과 수험생을 위한 채널	
SKY수능1,2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위한 채널 (점시타고 대학가자)	

부처님 오신 날 맞이 가입혜택	
■장비료 : 3,660원 × 24개월 (24개월 의무가입)	
■월 수신료 : 12,600원 (1년간 30%할인) / 12개월 의무시청 (SkyFamily기준)	
■납부방법 :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월 장비료 + 수신료 합산 청구)	
■특전 : 1개월 수신료 및 설치비, 가입비 면제 (단, 가입조건은 월별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최 : 불교TV(btn), MBNet •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 SkyLife 가입문의 및 신청 : 080)997-4949

**SkyLife**  
네 식 대 로 즐 기 는 TV